

KBS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S.O.



PIANO
ELISABETH LEONSKAJA

피아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813th

KBS교향악단 제813회 정기연주회

2025.5.2.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HS효성더클래스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KBS S.O. 813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시벨리우스
J. Sibelius 핀란드아, 작품 26
Finlandia, Op. 26 ㉠ 8'

그리그
E. Grieg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 30'

I. Allegro molt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13')

II. Adagio
차분하게 (7')

III. Allegro moderato molto e marcato
매우 적절한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음을 강조하여 (10')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엘가
E. Elgar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Enigma Variations, Op. 36 ㉠ 31'

수수께끼 : 느리게 Enigma : Andante (1')
1번주 "C.A.E." 같은 템포 L'istesso tempo (2')
2번주 "H.D.S.-P." 빠르게 Allegro (1')
3번주 "R.B.T." 조금 빠르게 Allegretto (1')
4번주 "W.M.B." 매우 빠르게 Allegro di molto (1')
5번주 "R.P.A." 적당히 Moderato (2')
6번주 "Ysobel"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리게 Andantino (1')
7번주 "Troyte" 매우 빠르게 Presto (1')
8번주 "W.N." 조금 빠르게 Allegretto (2')
9번주 "Nimrod" 적당히 Moderato (4')
10번주 "Dorabella - Intermezzo" 조금 빠르게 Allegretto (3')
11번주 "G.R.S." 매우 빠르게 Allegro di molto (1')
12번주 "B.G.N." 느리게 Andante (3')
13번주 "*** - Romanza" 적당히 Moderato (3')
14번주 "E.D.U." - 피날레 Finale (5')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미하엘 잔데를링은 2021년부터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취임 이후 브루크너, 말러, 슈트라우스와 같은 후기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주력으로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수 년간 성공적인 협업을 이어왔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아시아와 남미, 독일에서 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제10번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윌리엄 켄트리지의 애니메이션 ‘다른 세상을 믿다’를 함께 상영한 공연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이전에 루체른 KKL과 폼페이 테아트룸 문디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바 있다.

잔데를링의 취임 이후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많은 음반을 발매했고, 상당수가 호평을 받았다. 그 중에는 2023년 워너 클래식에서 발매된 브람스의 4개의 교향곡과 ‘제5번 교향곡’이라고 부를 만한 쇤베르크 편곡판의 피아노 사중주곡이 실린 브람스 사이클, 그리고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와 녹음한 슈만과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앨범도 포함되어 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객원 지휘자로서도 세계 유수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왔다. 베를린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NHK 교향악단, 톤할레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한 바 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했다. 잔데를링은 임기 동안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위상을 높여 독일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드레스덴의 콘서트홀과 수많은 국제 투어에서 함께 공연했으며, 소니클래시컬에서 발매한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전곡 녹음은 이 협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증명해준다. 잔데를링은 포츠담 체임버 아카데미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2006~2011년 동안은 동 악단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한 바 있다.

상기 녹음 이외에도 미하엘 잔데를링의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는 드보르자크, 슈만,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의 대표작 녹음, 그리고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에드가 모로와 함께 연주한 블로흐, 코른골트, 브루흐, 라벨 등의 작품이 실린 녹음이 있다. 2011년에는 쾰른 오페라하우스에서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의 새 프로덕션을 지휘해 오페른벨트(Opernwelt) 월간지에서 올해의 지휘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잔데를링은 젊은 음악가를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국립음악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도 정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2003~2013년에는 유소년 오케스트라 도이체 슈트라이커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PIANO
ELISABETH LEONSKAJA

피아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해석을 보여주는 연주자다. 2020년, 레온스카야는 국제 클래식 음악 협회(ICMA)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로부터 몇 년 전에는 고국 조지아에서 '예술의 여사제(Priestess of Art)'라는 최고 영예의 훈장을 수훈했다. 귀화한 모국 오스트리아에서도 레온스카야는 최고 영예의 오스트리아 과학예술 명예십자훈장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런던에서 위그모어 홀 메달을 수상했다.

레온스카야는 전설적 피아니스트 스투토슬라프 리히터가 그녀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한 덕분에 예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둘의 파트너십은 우정으로 이어졌고, 리히터가 1997년에 타계할 때까지 이어졌다.

1978년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는 소련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이주했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데뷔 무대가 극찬을 받으며 화려한 커리어의 막을 올렸다. 이후 유수의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와 함께 세계적으로 많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유럽 전역의 콘서트홀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개최했다.

작품의 본질 탐구와 음악 자체에 헌신하는 피아니스트 레온스카야는 독주 레퍼토리 못지 않게 실내악에도 열정적이다. 특히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과 오랜 음악적 교류를 이어왔으며, 함께 녹음한 음반은 전설적 연주로 평가 받는다.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방대한 디스코그래피는 체칠리아 상과 디아파종 황금 상을 비롯해 수많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슈베르트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집 녹음을 발매했고, 2024년에는 미하엘 잔데를링이 이끄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슈만과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음반이 발매되었다. 레온스카야의 최신 독주 앨범에는 쇤베르크와 베베른, 베르크 등 제2빈악파의 작품이 실려있다.

시벨리우스 J. Sibelius	핀란드어, 작품 26 Finlandia, Op. 26
-----------------------------	---

작곡연도	1899년
초연	1899년 7월 2일, 핀란드 헬싱키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트라이앵글, 현 5부
연주 시간	약 8분

상류층으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라고 빈 고전과 독일 낭만을 동경했던 안 시벨리우스(1865~1957), 그는 어떻게 국가적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가 태어났던 시기에 핀란드는 러시아에 속한 공국(公國)이었다. 처음에는 자치가 인정되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1869년에 통치를 강화하면서 검열제도가 도입되었고, 나중에는 자치 권한을 폐기하고 의회 해산, 러시아 동화정책, 러시아군 징병, 언론 통제 강화 등 압제가 극심해졌다. 핀란드인이라면 누구나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도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놀기만 좋아하고 무절제하게 사교활동을 했던 젊은 시벨리우스는 이러한 사회 상황에 무관심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세상에 눈을 뜨는 계기가 찾아왔다. 베를린 유학 중이었던 1889년에 당시 핀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로베르트 카야누스(Robert Kajanus 1856~1933)가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그의 교향시 <아이노>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핀란드의 전설을 집대성한 ‘칼레발라’를 토대로 작곡된 작품으로, 시벨리우스는 미국땅에서 울려 퍼지는 핀란드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요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자신도 칼레발라를 소재로 작곡하기로 결심했다. 합창 교향곡 <쿨레르보>(1892)에서 시작하여 교향시 <투오넬라의 백조>(1895), <포흐올라의 딸>(1906), 그리고 <타피올라>(1926)에 이르기까지, 칼레발라는 시벨리우스 음악 인생과 함께했다. 1892년에 열성적인 민족주의 집안인 예르네펠트 장군의 딸과 결혼한 것 또한 그가 민족주의자로 거듭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벨리우스가 민족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칭송을 받게 한 작품은 칼레발라를 소재로 하지 않은 교향시 <핀란드어>(1900)였다. 그는 1899년에 러시아의 언론 탄압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언론의 날’ 행사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다. 이 곡은 3일째 행사에 포함된 ‘역사적 정경’이라는 역사극을 위한 음악으로, 전주곡과 칼레발라, 그리고 핀란드의 여러 역사적 장면을 주제로 하는 일곱 곡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세 곡은 관현악 모음곡 <역사적 장면 1번>(1911)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고, 마지막 곡 ‘핀란드 깨어나다’는 이듬해에 수정되어 교향시 <핀란드어>가 되었다. 하지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핀란드어’라는 제목으로 연주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검열이 닿는 곳에서는 ‘핀란드의 봄이 시작되는 때의 행복한 기분’, ‘즉흥곡’ 등 다른 제목으로 연주해야 했다.

시작과 함께 무겁게 짓누르는 ‘고난의 동기’, 빠른 리듬으로 외치는 듯한 ‘호소의 동기’, 분위기가 밝게 바뀌고 행진하는 듯한 저음 선율인 ‘투쟁에 대한 호소’, 고음으로 상승하는 ‘승리의 동기’가 이어진다. 이러한 진행에는 가혹한 고통과 치열한 투쟁, 그리고 승리의 환희로 이어지는 극적인 판타지가 강렬하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윽고 목관 앙상블이 제시하는 엄숙하고 차분한 멜로디가 들린다. 이 부분은 가사를 붙여 ‘핀란드어 찬가’라는 합창으로 편곡되었으며, 오늘날 핀란드의 제2의 국가로 불리고 있다.

그리그 E. Grieg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	--

작곡연도	1868년
초연	1869년 4월 3일, 덴마크 코펜하겐
편성	플루트 2(제2플루트는 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현 5부
연주 시간	약 30분

어린 시절을 보낸 노르웨이 베르겐에서나, 10대 후반에 유학했던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나, 20세 즈음에 활동했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나, 에드바르 그리그(1843~1907)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한 그가 고국의 대표 작곡가로 등극하게 된 것은 25세 때의 역작 <피아노 협주곡>(1868) 덕분이었다. 1869년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진 초연이 크게 성공했고, 특히 이듬해 리스트가 직접 연주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를 얻었다.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며, 세상을 떠난 해인 1907년에 최종 마무리되어 평생의 노작(勞作)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세세하게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른을 두 대에서 네 대로 늘려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튜바를 제3트롬본으로 교체하여 음색의 응집력을 높였다.

그리그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슈만의 협주곡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a단조’라는 조성은 그 존경심의 각인이다. 하지만 그의 곡은 슈만처럼 우울하기보다는 기쁘고 밝으며 따스하다. 여기에는 당대 뛰어난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가 그를 ‘북구의 쇼팽’이라고 불렀듯이, 쇼팽에 심취했던 것 또한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노르웨이의 수도 크리스티아니아(오슬로)에서 지휘자와 음악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잡고 첫 딸을 얻는 등 그가 만끽하던 삶에 대한 행복한 마음도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녹아들었을 것이다.

1악장 ‘적당히 빠르게’. 팀파니의 트레몰로와 강력한 관현악 총주 후 피아노가 등장한다. 이러한 시작은 슈만의 협주곡과 매우 유사하다. 이어서 목관 앙상블이 연주하는 소박한 단편이 네 마디 동안 연주된 후, 클라리넷과 바순의 유연한 선율 네 마디가 이어진다. 이렇게 제1주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피아노가 연주하는 제2주제도 장식적이고 편안한 네 마디와 음의 상승과 음량의 증가로 갈등을 고조하는 네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그가 직접 쓴 카덴차는 즉흥 스타일로 시작한 후 제1주제를 기반으로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발전한다. 이어서 코다로 진입하고 서주 주제로 강렬하게 마친다.

2악장 ‘차분하게’. 약음기를 끼운 현악 앙상블이 주제를 차분하게 연주하며 시작한다. 이윽고 피아노가 등장하여 쇼팽을 연상시키는 장식적인 선율을 감미롭게 연주한다. 점차 화성적으로 두터워지면서 진지해지고 갈등이 고조되지만, 다시 첫 부분의 주제가 재현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한다. 씬 없이 다음 악장으로 연결된다.

3악장 ‘매우 적절한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음을 강조하여’. 목관 앙상블이 소박한 팡파르로 시작을 알리고, 피아노가 즉흥적인 서주를 강렬하게 연주한다. 그리고 리드미컬한 제1주제를 제시한다. 제2주제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플루트가 고음에서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고, 피아노가 화려하게 변주한다. 이외에도 여러 선율이 삽입되어 있으며, 마지막은 웅대하게 마친다. 슈만이나 쇼팽의 협주곡과 달리 영웅적이고 장대한 피날레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19세기에 기악 음악의 최고봉으로 여겨졌던 교향곡을 20세 즈음에 습작처럼 쓴 단 한 곡만을 남긴 그에게, 이 곡은 그의 마음의 교향곡이지 않았을까.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E. Elgar **Enigma Variations, Op. 36**

작곡연도 1898년-1899년
초연 1899년 6월 19일, 영국 런던
편성 플루트 2(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팀파니, 스네어드럼, 트라이앵글, 심벌즈, 베이스 드럼, 현 5부
연주 시간 약 31분

<사랑의 인사>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1857~1934). 그의 아름다운 음악은 결코 이 소품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특히 주제와 15개의 짧은 변주로 구성된 <수수께끼 변주곡>(1899)에는 인간적인 면모도 추가된다. 엘가는 각 변주곡에 사람을 상징하는 영문 이니셜이나 단어를 적어 두고는 ‘수수께끼’라는 제목을 붙였다.

“The Enigma I will not explain - its ‘dark saying’ must be left unguessed, and I warn you th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Variations and the Theme is often of the slightest texture; further, through and over the whole set another and larger theme ‘goes’, but is not played...”

- Edward Elgar (the 1899 program note for the Enigma Variations)

“내가 설명하지 않을 수수께끼 - 그 “어두운 말”(dark saying: 알 수 없게 가려져 있다는 의미)은 추측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변주곡과 주제 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연관성은 종종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린다. 또한, 전곡을 통해 또 다른 더 큰 주제가 ‘진행하지만’ 연주되지는 않는다.”

- 에드워드 엘가 (1899년 수수께끼 변주곡 프로그램노트 중)

사실 각 변주곡의 제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이미 모두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더 큰 주제”란 무엇일까? 이는 음악의 주제(theme) 선율이 아닌, 엘가가 산책하기 좋아했던 테메 강(River Teme)을 가리키는 말장난이라고 생각된다. 이 추측에 대한 단서는 13년 후에 작곡되는 칸타타 <음악 제작자, Op. 69>(The Music Makers)에 있다. ‘황량한 시냇물’이라는 가사에 <수수께끼 변주곡>의 주제가 분명하고도 의도적으로 인용되었던 것.

주제 : 바이올린이 슬픔을 품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클라리넷이 따뜻하게 위로한다.

1. C.A.E. 아내 엘리스 엘가(Caroline Alice Elgar). 감성적인 현악기 선율에 금관의 고귀한 화음이 더해져 열렬한 클라이맥스를 만든다.

2. H.D.S.-P. 아마추어 피아니스트 휴 데이비드 스튜어트-파월(Hew David Stuart-Powell) 피아노 치기 전 흰건반을 훑는 버릇을 현악기의 반음계 도약으로 재치 있게 표현한다.

3. R.B.T. 작가 리처드 백스터 타운센드(Richard Baxter Townsend) 낮은 목소리를 가졌으나 가성으로 노인 연기를 한 모습을 저음과 고음의 대비로 표현한다.

4. W.M.B. 대지주 윌리엄 미스 베이커(William Meath Baker). 시끄럽고 분주하다. 중간 부분에 작은 목관 캐논이 잠깐 등장한다.

5. R.P.A. 시인 매튜의 아들 리처드 펜로즈 아놀드(Richard Penrose Arnold). 어둡고 무거운 현악 앙상블과 가볍고 익살맞은 목관이 대비된다.

6. 이소벨 비올리스트 이사벨 피튼(isabel Fitton). 섬세하고 리드미컬한 음악 속에서 비올라 솔로가 살짝 나타난다.

7. 트로이트 건축가 아서 트로이트 그리피스(Arthur Troyte Griffith). 드럼과 현악기의 어색한 리듬으로 서투른 피아노 연주를 모방한다.

8. W.N. 우스터 필하모닉의 비서 위니프레드 노버리(Winifred Norbury). 엘가의 농담에 웃는 모습을 바이올린과 목관으로 묘사한다.

9. 님로드 ‘Nimrod’는 한글로 ‘님로드’라고 표기하지만, 사실 창세기 10장이 등장하는 ‘니므롯’을 의미한다. 성경에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고 적혀있는데, 사냥꾼은 독일어로 ‘예거’(Jäger)이다. 친구 예거. “선하고 사랑스럽고 정직한 영혼”을 표현한다. 추모곡으로 자주 사용된다.

10. 도라벨라 친구 페니. 목관이 연주하는 특징적인 단편의 반복은 그녀의 말더듬을 표현한다.

11. G.R.S. 오르가니스트 조지 로버스턴 싱클레어(George Roberston Sinclair). 더블베이스의 페달 포인트가 오르간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뛰어다니며 짓는 그의 불독 ‘덴’이 앞에 있다.

12. B.G.N. 첼리스트 바질 조지 네빈슨(Basil G. Navinon). 표현력이 매우 풍부한 첼로 독주가 곡을 감상적으로 이끈다.

13. * 로맨자** 이니셜이 없기 때문에 이 변주가 누구를 나타낸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변주는 멘델스존의 <잔잔한 바다와 풍요로운 항해>를 인용하여 호주로 바다 여행을 떠난 라이곤 부인으로 추정된다.

14. E.D.U. 작곡가 자신. 매우 행복하고 자신감 넘친다. 휘파람을 불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Edu는 엘가의 아내가 엘가를 부르는 별명이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CONDUCTOR
ANDRÉS OROZCO-ESTRADA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KBS S.O. 814th

VIOLIN
LEILA JOSEFOWICZ

바이올린 레일라 요세포비치

2025.5.22.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5.5.23. Fri 20:0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베를리오즈 / 로마의 사육제 서곡, 작품 9, H.95
H. Berlioz / Le Carnaval Romain Overture, Op.9, H.95

스트라빈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K053
I. Stravin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K053

슈트라우스 / 돈 후안, 작품 20, TrV 156
R. Strauss / Don Juan, Op.20, TrV 156

슈트라우스 / 장미의 기사 모음곡, 작품 59, TrV 227d
R. Strauss / Der Rosenkavalier Suite, Op.59, TrV 227d

BRAHMS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브람스 III, IV

KBS SO X MYUNG-WHUN CHUNG'S BRAHMS

MASTERS SERIES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2025.6.5. THU 20:00

롯데콘서트홀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F장조, 작품 90

J. Brahms / Symphony No.3 in F Major, Op. 90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J. Brahms / Symphony No.4 in e minor, Op. 98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역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예은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Matthias Wollong ^{드레스덴 국립관현악단 악장}
플루트	이주형 ^{수석}
클라리넷	조성호 ^{수석} 조동현 ^{부수석}
호른	Michal Emanovsky ^{수석}
트롬본	주인혜 ^{수석} 이종원 ^{부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운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업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스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 02-6099-7400
- ⓕ 02-6099-7416
- Ⓚ www.kbssymphony.org
- Ⓛ facebook.com/kbssymphony
-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 [kbs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